

코로나 시대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나나
SeoulTech어린이집 원장

The Impact of the Perceived Family Strengths at Home in the Era of Covid upon Child-Rearing Str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Na-Na Jung
Director of Seoul Tech Daycare Cente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낮아진 가족건강성의 회복과 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33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의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모두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의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인 물질적 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가정에서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건강성을 직접 낮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를 갖는 사회적지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restore family strength in the Covid-19 era, and to reduce child-rearing stress in the mother to encourage positive child-rearing behaviors. For this study, analysis of data from 331 mothers of toddlers from three to five years old showed that, first of all, family strength in the mother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all social support factors (emo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and informative support). Second, family strength in the mother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child-rearing stress. Third, emo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and informative support for the mother all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child-rearing stres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 and child-rearing stress, all four types of suppor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promotion of family strength as the primary target to reduce child-rearing stress in mothers in a Covid-19 family.

Keywords : Covid-19, Mothers, Family Strengths, Child-rearing Stress,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Na-Na Jung(Dongyang University)

email: nana7622@daum.net

Received June 20,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Revised July 19,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1. 서론

전 세계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발생으로 인해 사람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감, 감염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우울감 등의 변화가 발생되었다[1].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감염병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heung(2004)은 신종전염병은 단순히 의료적 문제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심리 사회적 영향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2].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전염병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며[3], 대규모 신종 전염병은 통제하기가 어려워 재난 상황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데,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난이 사라지고 피해가 복구된 이후에도 재난을 겪은 충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5].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족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6,7], 기존에 정서적인 유대가 강했던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자녀 및 부부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8]. 즉,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행동 및 인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수행된 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9-11],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일상적인 가족생활의 변화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였으며, 이는 가족 내부의 부정적인 감정의 형성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가족의 부정적인 환경은 결국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양육스트레스의 증가와 자녀의 돌봄 스트레스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이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긍정적인 형태로 도모하는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12], 이러한 가족의 건강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양육태도의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13-15]. 이러한 가족건강성은 가족행동의 내적 작용에 맞추어지며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나 감정, 의식, 경계, 규칙, 패러다임, 의사결정, 일상생활, 자원관리 등과 같은 가족과정

(family process) 및 가족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로 순간적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격정이나 근심 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축적된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개선시켜줄 수 있다[13,15].

최근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정신건강, 행복감 등을 위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다[16-18].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생활사건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19],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6].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스스로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자녀의 행동적,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불안한 마음을 지닌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불안장애로 판명될 확률이 7배가량 높았기 때문에[20], 부모의 불안이 관찰학습이나 양육 행동, 직접 경험 등 사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자녀 혹은 가족구성원의 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1].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허순금(2006)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배우자로부터의 따뜻한 말 한마디, 믿음,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주장하였으며[22], 김준기와 양지숙(2012)의 연구에서는 평등하고 친밀한 가족 지원이 이루어질 때 기존 여성이 경험하는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23]. 최은지(2011)의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의하여 낮추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24], 김유진(2020)은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25]. 즉,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과 동시에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낮아진 가족건강성의 회복과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가족건강성

일반적으로 가족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고취시키는 특성을 가진 가족을 건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의 장점은 가족 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26]. 그러므로 건강가족은 가족의 사회 심리적인 관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 및 유대를 도모하고, 긍정적이고 분명한 대화를 공유하며 가족 문제 또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가족 공통의 규칙과 가치관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성취 등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인 유대성이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27].

즉, 가족건강성이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사 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나누고 있으며, 친족 및 사회 체계와도 원만한 상호작용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를 갖고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9]. 또한, 건강은 개인 차원과 가족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개인 차원에서의 건강은 외부환경변화에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 차원에서의 건강도 같은 맥락에서 외부변화나 자극 등에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가족을 의미한다[28].

최근 가족건강성은 가족 주변의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획득가능한 자원과 가족 내에 잠재되어 있는 발전성 및 가능성 등 가족의 발전성 요인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29].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가족건강성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 이전의 연구보다 가족건강성에 대한 중요성의 언급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가족건강성은 코로나19의 불안감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9,11]. 그러므로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그들 간의 유대 및 가치체계 공유,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등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한 가족건강성을 도입함으로써 가족의 역기능 예방 및 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속한 집단 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로부터 정신적, 물리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서[30],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는 원조와 도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에 관한 여러 학자[31,32]들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집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나가는 데 도움을 받는 정신적, 물질적인 원조를 뜻한다.

또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집단 간 지속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으로,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적·정서적·평가적·물질적 지지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31]. 여기서 정서적 지지는 위로, 신뢰를 통한 지지이고, 정보적 지지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자녀교육과 여가활동 및 살림살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지지를 말한다. 물질적 지지는 도구적 금전 대여 및 물품 대여, 경조사 시 축의금 및 부의금 지원, 일손을 돕는 지지를 말하며, 평가적 지지란 자신의 행위를 칭찬 또는 인정하는 자기 평가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33].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한 연구[34]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우울, 좌절감,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낮추는 보호요인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 시대 전 보다 코로나19로 나타난 개인과 가족 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어주고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가족환경의 극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10].

2.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스트레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부담감이나 곤란 정도이며 가족생활의 발달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35]. Abidin(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는데[36], 최근 가족구조 및 역할 등이 변화되고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또한 증가하고 있다[37].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38], 실제로 정상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평균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지각되었으며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무력감은 그들의 공격성을 증가시켜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영아와 조화롭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 영아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은 우울, 언어적 학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되어진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서 양육스트레스는 가족환경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변화로 인하여 개인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9,11].

2.4 선행연구 검토

2.4.1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가족건강성과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장성화(2010)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며 사회적 지지가 함께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됨을 보고하였다[40]. 이인득(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및 사회적 지지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41]. 또한, 장정기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42], 위중희(2012)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일수록 가족 간의 지지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쳐 결국 다른 사람의 지지까지 얻어낸다고 하였다[43]. 이는 가족구성원 간에 정서적인 친밀감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족의 건강성 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인간은 환경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이나 적응, 대처, 심리사회적 조정, 가족의 정서적인 건강을 위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지지는 필수조건이라 하겠다[44].

2.4.2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원이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로써 이는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정서적, 공동체적인 관계가 증진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45]. 그러므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이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회복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된다고 하였다[46]. 고철순(2016)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 건강성이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보호요인이라 보고하였고[13], 반면에 가족 건강성이 낮은 역기능적 가족의 경우에는, 만성불안 및 스트레스, 가정외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47,48].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정은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존중 및 수용으로 아동의 여러 가지 행동특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가족체계 유지 및 사회활동이나 참여 등을 원만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족건강성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46].

2.4.3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혁준(2004)과 유호용(2001), 민은홍(2008) 등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영유아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49-51]. 손수민(2012)의 연구에서는 모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남편을 포함한 가족 외에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제공받고 있는지 사회적 지지를 기능적,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적 차원을 통해 모의 역할에 관한 지지를 얻게 되며, 양육으로 인한 고충, 어려움 등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52]. 또한, 이는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춘은 물론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였으며, 어머니가 필요한 경우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부탁 시 돈이나 물품 등을 빌려주는 지지,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 또는 가사를 도와주는 기능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코로나 시대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건강성,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로써,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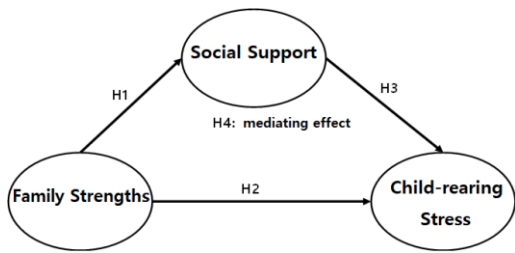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코로나 시대에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진행한 김성현(2022)의 연구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53].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54],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도구에 대한 총 66문항일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에 필요한 중간 효과 크기(effect size)=.2, 유의수준(α)=.05, 검정력(1- β)=.95로 하였을 때 최소 287명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대라는 점에서 탈락률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자 수를 360명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전체에 관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표집을 통한 설문응답자를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는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 중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03일까지 총 2주간 진행하였다. 총 360부를 배포하여 341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94.4%),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한 10부를 제외한 최종 331부(유효율 94.6%)의 설문응답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20s	90	27.2
	30s	105	31.7
	40s	124	37.5
	50s	12	3.6
Number of children	1 person	90	27.2
	2 person	150	45.3
	3 person	79	23.9
	4 person	11	3.3
	5 person	1	.3
Marriage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10	3.0
	dissatisfaction	27	8.2
	usually	117	35.3
	Satisfaction	152	45.9
Education	very Satisfaction	25	7.6
	High school	69	20.8
	College	102	30.8
	University	144	43.5
financial status	Graduate school	16	4.8
	very bad	2	.6
	bad	97	29.3
	usually	190	57.4
	good	40	12.1
Income	very good	2	.6
	less than ₩2,000,000	21	6.3
	₩2,000,000 - less than ₩4,000,000	209	63.1
	₩4,000,000 - less than ₩6,000,000	85	25.7
	₩6,000,000 - less than ₩8,000,000	12	3.6
₩8,000,000 - less than ₩10,000,000	4	1.2	

3.2 측정도구

3.2.1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측정을 위해 어은주, 유영주(1995)가 선행연구 고찰 및 기존 외국 척도들의 공통적인 측정 개념을 통합하여 만든 '가족 건강도 척도'[55]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양재혁과 김경렬(2017), 이지훈(2012)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56,57]. 양재혁과 김경렬(2017)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가족유대 0.875, 가족의사소통 0.822, 가족문제해결능력 0.862, 가치체계 공유 0.812로 나타났으며[56], 이지훈(2012)의 연구에서는 가족유대 0.918, 가족의사소통 0.874, 가족문제해결능력 0.797, 가치체계 공유

0.875로 나타났다[57]. 본 척도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개 문항, '가족원간의 유대' 10개 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9개 문항,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 6개 문항 등,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식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과 각 하위요인 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가족원간의 유대' 0.916,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0.913,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 0.922,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0.900, 가족건강성 전체 신뢰도는 0.970으로 나타났다.

3.2.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제시한 문항[58]을 고관우와 남진열(2016)이 수정 및 보완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56]를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고관우와 남진열(2016)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서적지지 0.891, 정보적 지지 0.897, 물질적 지지 0.869, 평가적지지 0.887로 나타났다[59].

이 척도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행위 속성을 네 가지 하위영역, 즉 정서적 지지(애정, 존경, 관심, 정보, 신뢰), 정보적 지지(개인의 문제해결에 이용가능한 정보 제공행위), 물질적 지지(돈이나 서비스, 시간, 물건 등 필요할 경우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 그리고 평가적 지지(자신의 행위를 칭찬 또는 인정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등으로 지지 형태를 구분하여, 각 영역별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방식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서적 지지' 0.812, '정보적 지지' 0.898, '물질적 지지' 0.632, '평가적 지지' 0.779, 사회적 지지 전체 신뢰도는 0.832로 나타났다.

3.2.3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Abidin(1990)가 제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60]를 수정한 신숙재(1997)와 하미정(2008)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61,62]. 하미정(2008)의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

레스 0.86,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0.74,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0.73으로 나타났다[62].

본 척도는 '자녀의 기질 관련 스트레스(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통해,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및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하여 느끼는 스트레스)' 8개 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불만족스럽거나 그들과의 사이가 서먹하다고 인식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9개 문항,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자녀가 부모가 기대하는 것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본인의 일을 하지 않아 느끼는 스트레스)' 3개 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식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 0.872,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 0.771,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0.622, 양육스트레스 전체 신뢰도는 0.896으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AMOS 23.0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였다. 그리고 측정변수들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Sobel-test를 활용하였다[63].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과 0.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

으며<Table 2>,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으며, 아래의 Table 3과 같이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537에서 0.914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able 2.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346.964 ($p=0.000$)	137	.947	.857	.947	.947	.057	.068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Family strengths	→ FB	.902	Fix	-	.961	.861
	→ FC	.889	.040	24.505***		
	→ FPSPA	.892	.048	24.721***		
	→ SFVS	.885	.040	24.297***		
Emotional support	→ ES 1	.798	Fix	-	.854	.664
	→ ES 2	.663	.074	11.977***		
	→ ES 3	.865	.089	15.204***		
Material support	→ MS 1	.610	Fix	-	.823	.609
	→ MS 2	.655	.105	9.162***		
	→ MS 3	.537	.111	7.897***		
Evaluative support	→ ES 1	.713	Fix	-	.872	.695
	→ ES 2	.756	.082	12.329***		
	→ ES 3	.741	.082	12.105***		
Informative support	→ IS 1	.772	Fix	-	.932	.822
	→ IS 2	.914	.069	18.015***		
	→ IS 3	.912	.067	17.987***		
Child-rearing stress	→ CT	.784	Fix	-	.894	.738
	→ PCR	.772	.058	14.245***		
	→ LE	.780	.079	14.409***		

*** $p<.001$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Table 4>.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으므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723**	1									
3	.791**	.713**	1								
4	.618**	.686**	.711**	1							
5	.412**	.432**	.439**	.541**	1						
6	.329**	.343**	.307**	.281**	.163**	1					
7	.491**	.490**	.435**	.438**	.235**	.672**	1				
8	.488**	.550**	.613**	.629**	.404**	.241**	.339**	1			
9	-.440**	-.409**	-.503**	-.589**	-.556**	-.133*	-.282**	-.471**	1		
10	-.586**	-.560**	-.631**	-.623**	-.529**	-.283**	-.445**	-.503**	.580**	1	
11	-.441**	-.454**	-.540**	-.570**	-.524**	-.150**	-.270**	-.498**	.671**	.572**	1

** $p<.01$

Family strengths: 1: Family bonds, 2: Family communication, 3: Family problem solving performance ability, 4: Shared family value system, Social Support: 5: Emotional support, 6: Material support, 7: Evaluative support, 8: Informative support, Child-rearing stress: 9: Child's temperament, 10: Parent child relationship, 11: Learning Expectation

4.3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으며, χ^2 , RMR, GFI, NFI, AG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Table 6>,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beta=.547, p<.001$), 물질적 지지($\beta=.494, p<.001$), 평가적 지지($\beta=.620, p<.001$), 정보적 지지($\beta=.666, p<.001$)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beta=-.350, p<.001$)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beta=-.467, p<.001$), 물질적 지지($\beta=-.169, p<.01$), 평가적 지지($\beta=-.177, p<.01$), 정보적 지지($\beta=-.179, p<.01$)는 모두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tudy model fit

$\chi^2(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482.181 ($p=0.000$)	142	.866	.821	.914	.914	.058	.085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Family strengths	→ Emotional support	.547	.086	9.150 ***	.000
	→ Material support	.494	.085	6.004 ***	.000
	→ Evaluative support	.620	.087	9.155 ***	.000
	→ Informative support	.666	.067	11.553 ***	.000
Family strengths	→ Child-rearing stress	-3.350	.074	-4.054 ***	.000
Emotional support	→	-4.467	.036	-7.830 ***	.000
Material support	→	-1.169	.054	-2.642 **	.008
Evaluative support	→	-1.177	.042	-2.827 **	.005
Informative support	→	-1.179	.043	-3.079 **	.002

*** $p < .001$, ** $p < .01$, * $p < .05$

다음 Table 7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p < .001$ 수준에 의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7. Analysis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bootstrapping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Family strengths	Social Support	Child-rearing stress	-.350	.000	-.401	.000	-.751	.000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적 지지에 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Sobel-test를 실시하였고[63],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8과 같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Z-value=-5.929, $p < .001$), 물질적 지지(Z-value=-2.407, $p < .05$), 평가적 지지(Z-value=-2.706, $p < .01$), 정보적 지지(Z-value=-2.987, $p < .01$)에 관한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어머니가 지각하

는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사회적 지지(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매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를 부분 매개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8. Analysis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Sobel-tes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Family strengths	Emotional support	Child-rearing stress	-5.929	.000
	Material support		-2.407	.016
	Evaluative support		-2.706	.007
	Informative support		-2.987	.003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심리적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지지적 관계를 잘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건강성과 사회적 지지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인득(2013)과 장정기 외(2014)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41,42].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스스로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자녀와의 갈등이나 힘겨루기 등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반응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도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한 김자경과 신서영(2012)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47].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는 모두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육에 관한 사회적 지원 측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손수민(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52], 자녀 양육을 어머니 또는 개별 가족의 역할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인 물질적 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의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타인과의 접촉 및 영유아 가정에서의 행동제약이 나타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양육 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한 제약이 늘어남으로 인해 자녀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정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상호존중 및 수용으로 자녀의 여러 가지 행동 특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가족체계 유지 및 사회활동이나 참여 등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하므로, 가족건강성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가정에서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가족건강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족구성원 간 배려와 관심으로 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 간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가족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활발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지각하게 되므로 가족의 응집력 및 유대감 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가족건강성 증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며,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성을 갖춘 가족 상담 및 교육 등 외부의 도움을 제공하여 가족건강성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부부갈등 해결 방법 및 관계 개선 등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와 주변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없다면 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자원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에 더하여 자녀를 함께 키우는 아버지들에게도 자녀양육 방법 및 영유아발달에 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5.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유아들이 어릴수록 양육스트레스가 크다는 선행연구[22,31,34,36]를 참고하여 연령제한을 두고, 3-5세 이하의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다양한 신체 건강 및 정신 관련 결과와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차를 두고 측정하는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들 중 일부를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차원의 새로운 변인들, 예를 들어 낙관성이나 감정조절력, 완벽주의, 거부민감성 등을 추가하여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G. Chen, Q. Wu, H. Jiang, H. Zhang, J. Peng, J. Hu, C. Xie, "Fear of disease progression and psychological stress in cancer patients under the outbreak of COVID-19," *Psycho-Oncology*, Vol.29, No.9, p.1395, 2020. DOI: <http://dx.doi.org/10.1002/pon.5451>

- [2] F. M. Cheung, "Commentary: Reintegrating psychology into an expanded biopsychosocial model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7, No.1, pp.83-88, 2004.
DOI: <http://dx.doi.org/10.1111/j.1467-839X.2004.00136.x>
- [3] W. Cao, Z. Fang, G. Hou, M. Han, X. Xu, J. Dong, J. Zhe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 COVID-19 epidemic on college students in china," *Psychiatry Research*, Vol.287, pp.1-15, 2020.
DOI: <http://dx.doi.org/10.1016/j.psychres.2020.112934>
- [4] J. S. Han, J. H. Choi, S. O. Lee, Y. R. Kim, S. S. Kim, "The effect of empathy on anxiety and depression in COVID-19 Disaster : Through risk perception and indirect traum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11, pp.609-625, 202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1.21.11.609>
- [5] R. H. Lee , "Factors related to COVID-19 anxiety and stress: Focus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neighborhood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6, pp.71-80, 202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1.21.06.071>
- [6] I. J. Chung, S. J. Lee, H. J. Kang, "Changes in children's everyday life and emotional condi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69, No.4, pp.59-90, 2020.
DOI: <http://dx.doi.org/10.24300/jkscw.2020.12.69.4.59>
- [7] H. Prime, M. Wade, D. T. Browne,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Vol.75, No.5, p.631, 2020.
DOI: <http://dx.doi.org/10.1037/amp0000660>
- [8] H. S. Jung, S. M. Lee, "The effects of parents'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family interac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5, No.4, pp.199-221, 2021.
DOI: <http://dx.doi.org/10.32349/ECERR.2021.8.25.4.199>
- [9] J. E. Yoo, H. S. Park, "A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dual-income parents with infants and children and single-income parents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6, pp.21-33, 202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6.21>
- [10] M. J. Chin, M. A. Sung, S. H. Son, J. E. Yoo, J. R. Lee, Y. E. Chang, "Changes in Family Life and Relationshi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erceived Stress," *Human Ecology Research*, Vol.58, No.3, pp.447-461, 2020.
DOI: <https://doi.org/10.6115/fer.2020.032>
- [11] M. J. Kim, Y. J.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Health in the Impact of COVID-19 Anxiety on Life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7, No.11, pp.165-176, 2021.
DOI: <https://doi.org/10.47116/apicri.2021.11.14>
- [12] S. M. Lee, "Family strengths and related variables in adult males and females," *Human Ecology Research*, Vol.49, No.5, pp.129-142, 2011.
- [13] C. S. Ko, "The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 strengths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1, pp.389-397,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1.389>
- [14] H. J. Jin, *The effect of family health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distress*. Master's Thesis, Mokpo University of Korea, 2017.
- [15] Y. J.Hwang,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child household depriv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family wellnes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different types of families," *Family and Culture*, Vol.34, No.4, pp.78-118, 2022.
- [16] M. R. Oh,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on parenting behaviors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by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Doctoral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23.
- [17] H. M. Lee, *The effect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perceived maternal gatekeeping role: Focused on the meditating effects of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of Korea, 2018.
- [18] S. H. Hong, J. H. Tak, H. M. Kang, "Effect of happiness on parental stress and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satisfaction level,"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0, No.2, pp.73-91, 2014.
DOI: <http://dx.doi.org/10.14698/jkce.2014.10.2.073>
- [19] G. H. Kim, "The effect of parent's happiness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116, pp.1-20, 2019.
DOI: <http://dx.doi.org/10.37918/kce.2019.05.116.1>
- [20] S. M. Turner, D. C. Beidel, A. Costello, "Psychopathology in the offspring of anxiety disorders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5, No.2, p.229, 1987.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55.2.229>
- [21] Y. R. Ha, S. H. Kim, "An analysis on the change process of mother's child image in mother counseling process during play therapy of young children exhibiting anxiety,"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24, No.2, pp.49-68, 2020.
- [22] S. G. Heo, *Factors affecting fostering stress among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of Korea, 2006.
- [23] J. K. Kim, J. S. Yang,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work-family balance: A focus on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Korean Institute of Public Affairs*, Vol.50, No.4, pp.251-280, 2012.
- [24] E. J. Choi, *The relationship among working mother's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2011.

- [25] Y. J. Kim,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on maternal social parenting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Vol.5, No.1, pp.159-189, 2020.
- [26] H. S. Kim,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Doctoral Thesis, Chonnam University of Korea, 2011.
- [27] D. H. Kwon, Y. J. Oh, "Family strength and self-esteem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22, No.1, pp.115-127, 2004.
- [28] M.H. Do, J. Ju, S. O. Choi, M. Y. Lee, H. J. Song, M. N. Jang, *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 Seoul: Sinjeong, 2019.
- [29] M. O. Lee, "The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for family strengths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s," *Family and Culture*, Vol.27, No.4, pp.137-158, 2015.
DOI: <http://dx.doi.org/10.21478/family.27.4.201512.006>
- [30] M. H. Min, S. H. Yi, O. K. Le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Human Ecology Research*, Vol.43, No.11, pp.109-125, 2005.
- [31] S. Y. Jeong, *The relationship of sex-roles identity,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life of the alcoholic women and general women*.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of Korea, 2003.
- [32] S. Cohen, T. A. 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No.2, pp.310-357, 1985.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98.2.310>
- [33] J. R. Lee,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support by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female earner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1.
- [34] J. H. Yang,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ffects between mother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6, No.1, pp.385-402, 2016.
DOI: <http://dx.doi.org/10.18023/kiece.2016.36.1.017>
- [35] J. O. Lee,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ho have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3, No.5, pp.403-428, 2008.
- [36] R. R. Abidin,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21, No.4, pp.407-412, 1992.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37] J. Y. Kim,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 *stress*, Vol.23, No.2, pp.91-100, 2015.
- [38] K. Crnic, C. Low,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2.
- [39] M.Y. Kim, D. Y. Park,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verbal abuse of infant's moth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5, No.4, pp.375-382, 2009.
- [40] S. H. Jang, *A structural analysis on family strength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alternative schools*.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of Korea, 2010.
- [41] I. D. Lee,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teenager on catrrt maturity*.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of Korea, 2013.
- [42] J. G. Jang, J. L. Ko, K. S. Kim,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self-esteem, social support perceived by young drafted marines an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Korean Military Social Welfare*, Vol.7, No.1, pp.97-125, 2014.
- [43] J. H. Wi,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stress-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Thesis, Donga University of Korea, 2012.
- [44] E. H. Lim,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immigrant women through marriage," *Journal of Hanyoung Theological Seminary*, Vol.12, pp.217-238, 2008.
- [45] D. H. Olson, A. S. Larsen, H. I. McCubbin, *Family strengths*. In *Handbook of measurements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Routledge, 2013.
- [46] H. S. Keum, *Depression, social supports, and family strength of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of Korea, 2014.
- [47] J. K. Kim, S. Y. Shin, "Maternal caring stress, caring attitude and family resil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14, No.4, pp.105-125, 2012.
- [48] S. M. Lee, K. S. Kim, "The effect of family stress and family strengths on depression of married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7, No.3, pp.3-22, 2012.
- [49] H. J. Moon,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Human Ecology Research*, Vol.42, No.11, pp.109-122, 2004.
- [50] H. Y. You,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2001.
- [51] E. H. Min, *The relation between the nursing support and the parenting stress of infants' mothers*.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of Korea, 2008.
- [52] S. M. Sohn,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1, pp.331-357, 2012.
- [53] S. H. Kim, "The effects of mothers' COVID-19 stress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7, pp.181-194, 2022.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2.22.7.181>

- [5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55] E. J. Eo, Y. J. Y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ales for measure family strength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ome Management*, Vol.13, No.1, pp.145-156, 1995.
- [56] J. H. Yang, K. R. Kim, "The effects of leisure sport participation in the middle-aged on family strengths and later life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6, No.2, pp.393-405, 2017.
- [57] J. H. Lee, *The effect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f family strengths, social support and parents efficacy by their parents perception*. Master's Thesis, Suncheon University of Korea, 2012.
- [58] J. W. Park, *Work study for social support scale development*.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1985.
- [59] K. W. Ko, C. Y. Nam, "The mediation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of mothers with the disabled children and the family function: Focusing on the interactive effects by disability type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No.53, pp.409-441, 2016.
- [60] R. R. Abidi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9, No.4, pp.298-301, 1990.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1904_1
- [61] S. J. Shin,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al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1997.
- [62] M. J. Ha,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n self-efficacy and daily stress among school-aged children*.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of Korea, 2008.
- [6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정 나 나(Na-Na Jung)

[정회원]



- 2023년 2월 : 동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전공 교육학 박사)
- 2020년 9월 ~ 2023년 2월 : 한국 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외래 교수
- 2020년 9월 ~ 2023년 2월 :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 전공 외래교수
- 2023년 5월 ~ 현재 : SeoulTech어린이집 원장

<관심분야>

유아교육, 부모교육, 부모상담